

학생생활관 의무식 제동 걸리나

〈義務食〉

공정위서 성균관대 기숙사 '식권 끼워팔기' 제재
 대학당국, 설문조사 결과 통해 의무식 존폐 결정

성균관대 봉통학사(기숙사)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식권 끼워팔기' 관행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자진 시정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 대학 학생생활관에도 의무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균관대는 지난 1학기까지 기숙사 학생들에게 월 60식(1식 2500원)을 의무 구입토록 했다. 식비는 매 학기초 일괄 납입하는데, 한 학기 평균 230식에 해당하는

60만원 정도의 식비를 선납하지 않은 학생은 기숙사 입사 자격이 박탈 당했다. 한 입사생이 공정위에 위와 같은 상황을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그 결과 이번 2학기부터 성균관대에서 의무식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의무식을 시행하고 있는 학생생활관은 1식 1800원으로 조·석식은 의무이고 주말 및 공휴일 중식은 선택적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라

도 의무식을 먹는 학생들은 조별과제 모임, 아르바이트 등의 이유로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생생활관에 거주하는 황보동재(기계공학과 2)씨는 "개인사정 때문에 의무식을 먹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건상 의무식을 해도 성균관대처럼 입실할 때 의무식 선택 여부를 물어보고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생생활관은 선택식을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지금과 같은 음식의 질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편

의를 위해 의무식 유지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수 행정실장은 "앞으로 입주 학생들에게 설문을 통해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며 "의견을 잘 조율해 의무식 존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균관대는 이번 2학기부터 월 60식(1식 2500원) 구매에서 벗어나 △자유이용(3200원) △일식 113식(3000원) △일식 1.5식 170식(2750) △일식 2식 226식(2500원) △일식 2.5식 283식(2400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선주 기자

태풍 피해액 1억8천 잠정 집계

유리·출입문 등 파손
 전직원 복구 구슬땀



지난달 28일 태풍 '볼라벤'이 몰아친 후 아래캠퍼스의 나무들이 쓰러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김소영 기자

지난달 28일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30일 제14호 태풍 '덴빈'이 연이어 제주도에 상륙하면서 제주대는 약 1억7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시설과에서 캠퍼스 내 태풍 피해를 조사한 결과 인명피해는 없고 건물의 유리 파손, 천장 부재, 지붕 등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집계 결과 본관 화장실 천정이 파손됐으며 자연과학대학 1, 2호관은 실외기 이탈, 옥상 출입문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경상대학 2호관과 공과대학 3호관에서는 유리가 파손되고 학생생활관 2호관에서는 지붕 기와 및 유리창이 파손됐다. 사라캠퍼스에는 사라교육관 강화도어가 파손되고 학생회관 휴게실 창문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제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 중·고등학교에서는 다목적실과 급식실 지붕 일부가 강풍에 훼손됐다. 또한 교육대부설초등학교에서는 교실(별관) 지붕이 일부 훼손됐으며 본관 외벽 패널이 일부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과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했

다. 또 총무과는 각 단과대학 별로 태풍 피해 대비 공문을 보냈다. 양영우(시설과) 토목팀장은 "교육인적자원 재난공제회에 복구비 지원을 신청해 피해가 확인되면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부러진 나뭇가지 및 수목은 수거했으며 피해 정도가 경미한 사항은 학교 자체에서 복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희은 기자

전산통계학과 전국 최상위 평가

학과 융합 교수간 협업이 이뤄낸 쾌거... 수학과는 상위

전산통계학과(학과장 이봉규 교수)가 전국 최상위권으로 평가됐다. 수학과는 상위권, 공과대학 생명화학공학과는 중상위권으로 분류됐다. 4일 발표한 중앙일보 대학 학과평가 결과 전산통계학도가 최상 2.28% 이내 관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통계학과는 9개 평가지표 중 대학중 재학생 중도 탈락률 1위(평가대상 47개 대학), 전임교수(이학 겸임) 1인당 SCI(과학기술논문 색인

지수) 논문수 및 전임 1인당 교외연구비 2위, 전임 1인당 교내연구비 3위를 기록하면서 서울대 전산통계학과와 함께 전국 최상위로 평가됐다. 또 최근 12년간 이 학과를 졸업한 396명의 평균 취업률이 70%에 이르렀고 졸업생들의 진로도 IT와 금융권 등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산통계학과는 '제주도에 설치된 휴대전화 중계기의 전파 세기가 적절인지에 대한 국제사업 연구'에서 IT

와 통계학을 접목해 연구 성과를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학과 융합과 교수간 협업을 앞세워 연구비와 연구실적에서 다른 대학보다 월등했다. 이봉규 학과장은 "더 노력해 내년에는 자연과학대학의 더 많은 학과가 최상위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학과간 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5.9%이내 상위로 평가받은 수학과는 전임 1인당 교내연구비 2위(평가대상 64개 대학), 전임 1인당 저역서수 7위를 기록했다. 김윤희 기자

내년 교류수학생 모집 14일 마감... 11개국 130명 선발

국제교류본부(본부장 강영훈)는 2013학년도 제1학기 국외 파견 교류수학생 및 복수 학위생을 선발한다. 이번 국외 파견 교류수학생은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등 11개국 124명을, 복수학위생은 중국 일본 등 2개국 6명 이내로 모집한다. 교류수학생은 오는 14일까지 신청하며 대상자 확정은 20일 발표된다. 면접, 교류대학 추천,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교류대학으로 파견된다. 문의 국제교류본부(754-2429)

대학 본부 3층 리모델링

산학협력단·경영사업단·학생복지과 이전

박물관이 문화교류관 2, 3층으로 이전하면서 대학본부 3층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23일 시작해 8월말에 리모델링을 마쳐 지난 1일 새로이 새로이 부서들이 재배치됐다. 이 사업에는 7억8011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됐다. 새로 배치된 본부 3층에는 기존에 있던 산학협력단의 공간이 크게 확장됐다. 이와 함께 경영사업단 및 학생

복지과가 이전했다. 특히 학생복지과는 공간이 부족해 본관 1층과 학생회관 1층에 나눠서 업무를 봤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이 사무실을 잘못 방문하는 경우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종전 대학본관 1층 학생복지과는 입학관리과로 쓰이며 학생회관 1층은 생활협동조합 사무실로 쓰인다. 또 기존 경영사업단 위치에는 기획평가과가 사용할 계획이다. 기존 2층에 위치했던 대회의실은 외빈 접견실, 사회의실로 사용한다. 더불어 휴게실, 작업실, 창고 등도 들어서 예정이다. 이남호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이 협소한 공간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확장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



대학 본부 3층에 새로 설치된 대회의실 모습.

로도 산학협력단이 대학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본관 서쪽에 15인승 승강기 증축 공사는 다음달 17일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융합형 디자인 육성 대학 선정

5년간 국비 10억원 지원... "녹색관광산업 선도"

제주대가 '2012년도 융합형디자인대학육성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5년간 최대 1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다. 학제간 융·복합형 디자인교육 시스템을 확립해 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디자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문영만(산업디자인학부) 교수를 단장으로 예술디자인대학·경상대학·사범대학·공과대학·해양과학대학 등 5개 단과대학, 산업디자인학과·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경영학과·관광경영학과·컴퓨터교육과·전기공학과·토목공학과 등 6개 학과가 사업에 참여한다.

제주대는 융합형디자인대학육성 사업을 통해 제주광역경제권, 지역특화산업, 대학특성화를 연계해 '녹색관광 융합형디자인대학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영만 단장은 "이번 사업을 수행하면서 제주도가 제주도의 녹색관광산업을 선도할 것"이라며 "디자인 지식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융·복합형 디자인 인재를 양성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0개 대학이 선정됐다. 그 결과 제주대를 비롯해 이화여대·부경대·한양대학교 등 4개 대학이 선정됐다. 정한별 기자

제6대 교수회장 선거 25일 7일 후보자 등록 마감

교수회(회장 이상봉)에서 6대 교수회장 입후보자 신청을 오는 6일부터 2일간 받는다. 자격은 제주대 정교수로 교수회장 입후보등록신청서와 재직증명서, 이력서, 입후보소견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면 된다. 또한 명함판 사진 2매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6대 교수회장 선거는 오는 25일 아래캠퍼스 사회과학대학 중강당, 제주대학교병원 도서관, 사라캠퍼스 회의실 세 곳에서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교수회(754-2088)로 문의하면 된다. 선거인명부 공람 및 이의신청은 오는 18일부터 3일간 교수회 사무실, 각 단과대학(원) 행정실, 기획평가과에서 열람해 볼 수 있다.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Center for ZAINICHI JEJU People

재일제주인과 함께 하는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재일제주인센터는 재일제주인의 삶과 역사를 새로이 조명하여, 그들의 개척정신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고자 합니다. 제주도민과 재일제주인과의 교류와 소통의 중심 역할은 물론, 재일제주인·재외한국인 연구의 중심 센터가 되겠습니다.





재일제주인과 함께 새 역사의 장을 열어가는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홈페이지 주소 : <http://zainichijeju.jejunu.ac.kr>
 전화번호 : 064)754-3975~3978
 팩스번호 : 064)724-8855

사설

진정한 소통의 의미

현대사회 흐름의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가 IT이다. 특히 가장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IT기기는 휴대폰이다. 최근 더욱 폭발해온 휴대폰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보편화되고 있고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신 인프라는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인 SNS(Social Network Service) 문화를 탄생시켰고 SNS를 통해 인맥을 새롭게 쌓거나, 기존 인맥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최근 큰 피해를 안겨준 태풍을 대비하는데 휴대폰을 이용한 SNS가 큰 위력을 발휘하여 피해를 줄이는 등 긴급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 생활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휴대폰이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휴대폰 삼매경(三昧境)에 빠진 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보다는 오직 자신이 갖고 있는 휴대폰과의 대화에 몰입해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단면이다.

사람을 만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카페와 커피숍에도 버스 안에도 함께 있는 상대방과의 시선을 마주하고 진득하게 대화를 하기 보다는 휴대폰에 눈길을 줄 뿐이다. 심지어 가족과의 식사에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대학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학생들도 친구와의 대화보다 휴대폰에 더 많은 시선과 시간을 소비하는 모습을 쉽게 접

할 수 있다. 강의중에도 책상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은 채 자연스럽게 문자대화를 나누는 것도 이제 일상화 되어 버렸다. 교수와 학생간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연구실에서 직접 만나 논의하고 대화를 하기 보다는 각종 학사관련 모든 일들이 문자와 메일로 간단하게 소통되어 버리곤 한다. 휴대폰을 통한 학생간의 대화 역시 지극히 가볍고 피상(皮相)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간편한 세상이라는 하지만 여기에는 인간미 넘치는 따스한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다. 교수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대화를 통해 읽을 수 없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중시하고 이러한 사람과 사람의 교류와 접촉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도록 교수와 학생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연스럽게 빈번한 커뮤니케이션을 발생하게 하고 유도하는 캠퍼스 환경조성과 제도적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스스로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소통은 따스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정한 소통은 교수와 학생간의 신뢰와 믿음, 그리고 우리 대학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이다.

IT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는 모르겠으나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통해 간단하고 간편하게 나누는 피상(皮相)적인 대화보다 얼굴을 마주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를 권하고 싶다.

정혜운씨 국제미술제서 대상 수상

“붓질과 색채 살아있다”

정혜운(미술학부 서양화전공 4·사진) 씨가 '2012 아시아프 프라이즈'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붓질과 색채가 살아 있다”며 “현대 사회의 부조리가 어린이의 모습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각화한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평했다. 정씨는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아이들이 어른처럼 현실적으로 변해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순수하게 태어나 속되게 변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표현해 보려 했다”고 말했다. 윤신혜 기자

성 김 대사 6일 강연

성 김 주한 미국대사가 오는 6일 오후 2시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21세기의 한미동맹(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성 김 대사는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되기 전 대사급으로 북핵 6자회담 미국 특사를 역임했으며 2006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냈다. 윤신혜 기자

이지혜씨 최우수상 모바일앱 공모전서

이지혜(컴퓨터공학과 3·사진) 씨가 2012 대학생 모바일 앱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씨는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레포트 메이커' 앱 아이디어를 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오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리온 국제박람회 행사에서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을 받는다. 이씨가 개발한 최우수상 수상작은 아이디어를 실용화 하기 위해 앱으로 개발돼 무료 배포된다. 대학이러닝지원센터 중앙운영본부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54개 대학에서 103개 팀이 응모했다. 성지아 기자

“인정평가와 학·석사 통합과정 연착륙 위해 전력”

인터뷰 홍성철 의학전문대학원장

홍성철(의학과) 교수가 신임 의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홍성철 신임 의학전문대학원장은 단과대학 학장 공모제를 통해 임명된 첫 사례이다. 단과대학장 공모제는 교수 선호도 50%와 심사위원회 50%를 반영하는 제도이다. 대학 본부는 지난 7월 2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대학교 단과대학(원)장 공모 임용 추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홍성철 의학전문대학원장은 경북대 의학과를 졸업,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의학석사,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8년 제주대와 인연을 맺어 기획부처장, 경영사업단장, 의과대부



학장 등을 역임했다. ‘거주환경의 차이가 제주 지역 소아의 흡입 알레르겐에 대한 감작률 및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취임소감. “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연임하게 됐다. 이는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열심히 일하겠다”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의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나.

“첫째로 2015년에 있을 의과대학 인정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이다. 지난해 열린 의과대학 인정평가에서 의전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의전원은 오는 2015년에 다시 평가를 받는다. 좋지 못한 평가를 받으면 자칫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국가고시를 못치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13·2014년 실적을 통해 평가를 받는 만큼 내년부터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 둘째로 학석사통합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은 전국 최초로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개편했다. 현재 고등학교 1-3학년에서 재학중인 학생들이 향후 4년제 대학 졸업 시점에는 제주대를 비롯한 극히 일부 대학을 제외하곤 대부분 대학이 의과

대학으로 복귀함에 따라 의전원으로 입학해 의사가 될 기회가 대폭 축소된다. 학사 3년, 석사 4년의 도합 7년 과정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자 한다.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빠른 과정이면서도 내실있는 의료인 양성에 이점이 있다. 학석사 통합과정과 함께 제주지역 인재들을 특별전형 등을 통해 많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지금 의학전문대학원이 중견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자리에 올라와 있다. 의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구성원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김명지 기자

“글로벌 안목 강화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에 중점”

인터뷰 현승환 기초교육원장

현승환(국어교육과) 교수가 지난 1일자로 기초교육원장으로 취임했다. 제주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교수에 임용돼 교과장, 교육과학연구소장, 탐라문화연구소 간사 등을 역임했다. -취임소감. “학생들의 기초교육 향상을 책임지게 돼 어깨가 무겁다. 제주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수의 교육 여건 신장과 학생들의 학습과정에 모자람이 없도록 지원하겠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글로벌 시대에 맞춰 학생들이 세



계적인 안목을 가지게 하겠다. 인터넷으로 세계 어딘가 돌아다닐 수 있는 요즘, 현재 처해 있는 환경에 안주하는 좁은 사고에서 탈피해 세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등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 기초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교양 지식을 습득하게끔 도와줄 계획이다.” -강사들의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먼저 강사들의 수업 환경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돕겠다. 강사들이 일부 직원들의 태도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강의를 하는 주체가 강사인 우리가 돕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고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최대한 수업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강의 신청 문제와 교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요즘 사회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학문 간의 융합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식, 경험을 쌓아야 한다. 그렇기에 기초교육원은 이에 맞는 강의를 계속 개설해 나갈 생각이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 개개인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기초교육원에서 다양한 강의를 만들고 지원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이 학점 받기 쉬운 과목만 수강한다면 학문 간의 융·복합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편협한 시각이 아닌 큰 안목을 갖고 강의를 들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기초교육원은 교양 강의를 할 때 교수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강의 외에도 인생 상담, 직업설계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시행 하고 있다. 기초교육원은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많은 경험과 자료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언제든 열려있는 기초교육원에 학생들이 문을 두드렸으면 한다.” 김동현 기자

인문대, 문화콘텐츠 인력 양성과정 개강

영상·방송인력 양성 등 4개 교육 트랙에 80명 참여

인문대학(학장 임동춘)이 주관하는 '2012 문화콘텐츠·기획홍보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지난달 29일 개강했다. 이번 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영상·방송인력 양성트랙 △홍보·출판인력 양성트랙 △박물관 학예사 양성트랙 △사회복지인력 양성트랙 등 4개의 트랙으로 구성

2학기 신입교원 15명 채용

2012학년도 2학기 신입교원 공채 결과가 발표했다. 이번 신입교원 공채에는 14개 학과 19개 분야 107명 지원해 5.63의 경쟁률을 보였다.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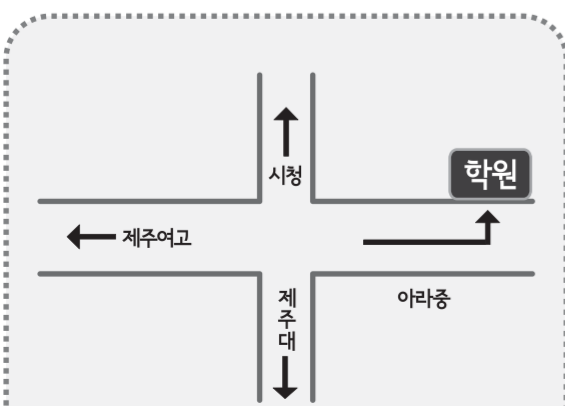
범대학 영어교육학과가 16: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식품영양학과가 13:1의 경쟁률로 그 뒤를 이었다. 19개 분야 중 2개 분야는 학과와 전공이 불일치해 채용하지 못했다. ▶ 관련기사 3면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항진 편집인·주관 김동윤 편집국장 김명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 전화내선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 ↔ 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Speaking이 되면 세계가 보인다”

△확! 바뀐 사운드 라이브러리로 초대합니다.△

- ▶ 위치 : 외국어교육원 2층
- ▶ 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 대상 : 제주대학교 전 구성원
- ▶ 내용
 1. 편안하고 안정된 학습 환경과 시설
 2. 멀티미디어 영어 학습 시스템 구축
 - ① Speaking 위주 멀티미디어 영어 학습 시스템
 - ② 영어를 영어로 학습하는 콘텐츠
 - ③ 수준 Test를 통한 학습자의 수준 측정
 - ④ 기초부터 고급까지 수준별 학습
 - ⑤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을 통합적으로 학습
 - ⑥ 각 단원별 Self-Test 제공으로 성취도 확인 학습
 - ⑦ 음성인식 엔진을 통한 발음교정 학습
 3. 각종 DVD, Video Tape 등 풍부한 학습자료 구축
 4. 전문 Tutor를 통한 영어 학습 상담 프로그램 운영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Foreign Language Institute
☎ (064)754-2291 ~ 2292, http://flj.jeju.ac.kr

제32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제58주년을 맞이하여, 제32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공모합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2. 응모분야 : 논문 A4용지 10~30매 내외(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 출력물과 논문 파일 CD로 동시 제출, 제출된 원고는 반환 안됨
3. 접수마감 : 2012년 12월 10일(월) 18:00까지
4. 시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5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30만원
5.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6. 발표 : 제주대신문 2013년 신년특집호(2013년 1월 1일 발행 예정)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신문

교수시론

네트워크로 풀어가야 할 복잡한 세상



양영철 행정학과 교수

“ 몇 명만 거치면 모두를 알 수 있는 네트워크 시대... 타인과의 원활한 소통 위해 네트워크의 운영원리에 충실해야 할 의무 있어 ”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글로 쓴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무게를 더욱 두고 쓴다. 학교를 나가면 학교와는 전혀 다른 세상과 접하게 된다. 그 속에서 때로는 투쟁, 그리고 조화 속에서 승리와 패배가 반복적으로 돌고 도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사회가 해답이 없는 혼돈(chaos)의 연속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혼돈의 정도는 우리의 학생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광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광란 속에서는 기존의 체제도, 선배도, 은사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정답을 제시할 수 없는데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도, 기존의 체제도 체험하지 못한 사건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일어나는 사건과 현상마다 변이종 암세포처럼 설명과 예측 불가 일색이다. 그럼에도 세상은 혼돈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해답이 있다는 증거다. '사회' 새내기 여러분들이 이 해답을 어떻게 찾아 갈 것인가? 가 본 글의 주 내용이다. 해답 찾기는 '세상'은 꼭 같은 것은 하나도 없는 복잡한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를 네트워크 사회라고 한다. 쉬운 예가 있다. 1967년 미국 중부 도시 대학교의 사회학자 밀 그래프는 뉴욕의 친구를 찾기 위한 실험을 한다. 친구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도 없는 드

넓고 복잡한 뉴욕에서 도대체 몇 사람을 통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생면부지의 뉴욕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을 찾아 달라고 했다. 결과는 다섯 사람을 거치니 친구를 찾았다. 그래서 밀 그래프는 지구상에 어떠한 두 사람도 5명만 거치면 다 아는 사이가 된다고 했다. 우리나라 학자도 유사한 실험을 했다. 2007년에 연예인의 네트워크를 분석했더니 최고의 허브는 2.7명인 박경림이었다. 즉 내가 박경림에게 내 친구를 찾아 달라고 하면, 박경림은 세 사람만 통하면 찾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트위터의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작가 이외수는 140만 명의 팔로워(followers)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친구찾기, 문제해결은 이외수 한 사람에게만 부탁해도 된다. 이외수는 곧 140만 명의 연결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유력 대통령 후보 박근혜, 문재인, 손학규 등도 이외수의 마음을 잡으려 그의 강연도 시골집을 방문하고 있다. 조만간 이들은 전 세계인들의 조회 수가 8천만을 넘고 있는 '강남 스타일' 싸이의 집 앞에서 싸이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해답은 이외수나 싸이와 같은 마당발(hub)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linker)을 찾으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마당발이 최고였으

나 네트워크 사회는 굳이 마당발이 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 마당발은 되기도 어렵지만 각종 경조사 경비 등 유지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든다. 그러나 마당발을 연계하는 매개자를 찾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우리보다 여러분이 훨씬 잘 하고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이 바로 훌륭한 매개자다. 그 속에 네트워크의 주요 구성요소인 마당발도, 매개자도, 중심자(center)도 다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학교도 제주대에 다녔기 때문에 선배도, 인맥도 없어 고생했던 여러분 선배들보다 훨씬 유리한 환경에 있다.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국내·외의 어느 누구와도 즉시 연결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가 있다.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조직과의 원활한 소통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 위에 타인과의 공동 진화를 추구하는 네트워크 운영원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이 의무에 충실하지 않을 시에는 네트워크는 그를 방출할 것이며, 방출된 자신은 네트워크의 천형이라고 할 수 있는 외톨이(outsider)로 살아야만 한다. 네트워크의 축복 속에 철학을 논하는 여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본다. Good Luck!

백록담

삼다수보다 더 좋은 물?

SJM 노동자 폭력 탄압 사태 그 후, D+41 SJM 사측, 폭력적 사업장 폐지 '무리수' 결국, 사측과 컨택터스 간부 구속 '자충수' 열심히 일하며 권리 주장한 노동자 '비수' 순수한 노동자 몰아내는데 컨택터스가 '선수' 불법 용역업체들 이름 바꿔 다시 여는 '폼수' 약자들 괴롭히는 용역업체 대한민국에서 '철수'! 컨택터스는 업무협조 해준 경찰에게 '박수'! 경찰 눈치 안 보고 노동자 몰아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컨택터스' 로, Contact Us.

독자기고

다양한 학내 외국어 프로그램 적극 활용을



윤나리 영어영문학과 4

2007년 3월, 외국어교육원과 첫 인연은 영어교양수업을 통해서였다. 외국어교육원이 단순히 교양수업을 받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겨날 무렵 그곳에서의 업무보조는 나의 생각을 180도 바꿔 놓았다. 외국어교육원에서 학사업무 보조를 하면서 외국어교육원이 단순히 교양수업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도민을 위해 TOEIC, Conversation, Writing 등의 영어강의와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강좌를 개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외국어교육원에서 공강 시간을 활용하여 TOEIC 수업과 원어민 강사진들을 들으며 마치 제주대내 어학원을 다닌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러 가지 강사진들을 들으며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고,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난 학기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배운 것을 잊지 않기 위해 공부하려고 학원을 알아 보던 중 외국어교육원이 다시 한 번 나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개강과 동시에 강의를 신청했다. Anthony Little의 Media Discussion 수업은 주마다 다른 주제를 선정해 놓고 이를 논리적으로 생각해 다른 사람들과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반박하는 등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한 주제를 놓고 하루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그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와주었고 또한 매주 주제가 바뀌므로 써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주제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 즐거웠다. 이러한 즐거움은 영어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켜주는 것은 물론 오히려 증가시켜 주었고 그 다음 2차 외국어특별강좌와 여름방학 외국어특별강좌에도 강좌를 신청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외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강료 할인 정책으로 2차 외국어특별강좌를 수강할 때에는 10%, 여름방학 특강 때는 누적 할인으로 20%를 할인 받아 더욱 더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었다. 또 6월에는 모의토크 경시대회에 입상하여 그 상급으로 여름방학 외국어특별강좌를 신청하는 일석이조 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 4학년 마지막 학기여서 공강 시간이 많았고, 전공강의와 Media Discussion 수업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외국어교육원 2층에 위치한 Sound Library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는 제주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TOEIC, TOEFL, TEPS 등의 시험대비 교재와 Speaking, Reading, Writing, Listening 등의 세분화된 교재, 중국어, 일본어 관련 교재는 물론 다양한 DVD를 구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 날의 기분에 따라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평소에는 Sound Library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하다가도 심심하다고 느껴질 땐 그곳에 있는 DVD를 빌려 보면서 영어 감각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외국어교육원이 대학생들을 위한 강좌뿐만

아니라 초등영어 강좌와 여름 방학 때 초등영어캠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초등영어캠프에서는 원어민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조해 줄 한국인 보조교사가 필요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지난 달에 약 2주간 일하게 되었는데 그 2주간의 경험은 대학생이 아니라면 하지 못했을 특별한 경험이었다. 원어민 강사를 도와줘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어 회화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또래가 아닌 초등학생과의 영어대화를 통해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영어가 전부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해가 먼저인 영어회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나에게 있어 외국어교육원이란 단순히 교양수업을 받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나의 외국어 실력을 어디까지 알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게끔 해주었던 디딤돌이며 동시에 어학연수 후 실력을 갈고 닦으며 꾸준히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곳이다. 많은 학생들이 외국어교육원의 강좌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더 알찬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적극 시행해야



허지영 사회학과 1

최근, 7살 여아가 집에서 자던 도중 이불에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대담해지고 잔인해지는 성폭행이라는 범죄가 끊임없이 화두에 오를 만큼 사람들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뚜렷한 방안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던 중 지난달 30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약물로서 치료하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재범 위험성과 성도착증 등 3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약물치료가 가능하지만, 당정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점차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많다. 약품의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 또한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는 타당치 않다. 먼저 가해자의 인권유린에 대해 말하는 사

람들에게 '그들에게 인권이란 있는 것인가?'에 대해 묻고 싶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로서 불가침의 권리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그것이 이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길이자,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일인 것이다.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육체적인 손상은 물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비인간적인 범죄로서, 이 범죄의 피해자들은 짐작도 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성폭력의 가해자는 이미 인권을 포기한 비인간적인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또한 화학적 거세에 쓰이는 약품의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재범률이 높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범죄보다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또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이 정책에 대해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행은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오늘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화학적 거세'를 지지한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내실 때 이름, 소속,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원고료 2만원. -보내실 곳 : press@jejunu.ac.kr

2012학년도 제2학기 전임교원 신규 임용



조부연(경영학과) 조교수-경영학 △학사: 고려대 심리학과 △석사: 고려대 마케팅전공 △박사: 고려대 경영학과 LSOM 최종 학위 논문명: 서비스 아웃소싱 관리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신창원(영어교육과) 조교수-영어교육 △학사: 서강대 영어영문학과 △석사: 서강대 영어영문학과·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박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최종 학위 논문명: Korean EFL Learners' Knowledge of Semantic, Morphological, and Syntactic Properties of English Verbs: The Relationships of Lexical and Grammatical Knowledge



이경연(수학교육과) 조교수-교육학 △학사: 제주대 수학교육과 △석사: 한국교원대 수학교육과 △박사: 한국교원대 수학교육과 최종 학위 논문명: 동양 산학의 유한급수론



안근재(과학교육과) 조교수-의과학 △학사: 순천향대 생명과학부 △석사: 충남대 의학과 △박사: 연세대 의학과 최종 학위 논문명: Amino Acid Sequence Motifs and Mechanistic Features of the Membrane Translocation of α-synuclein.



김병선(실습선) 조교수-수산공학 △학사: 제주대 어로학과 △석사: 제주대 어로학과 △박사: 제주대 어로학과 최종 학위 논문명: 제주도 연근해 연속적 채취기 어구의 생력화 관한 연구



이홍석(물리학과) 조교수-반도체나노구조 △학사: 연세대 물리학과 △석사: 연세대 물리학과 △박사: 연세대 물리학과 최종 학위 논문명: Characteristics of CdTe and CdxZn1-xTe quantum dots grown on GaAs and Si substrates



박성우(식품영양학과) 조교수-생물화학 △학사: 중앙대 식품가공학과 △석사: 중앙대 식품가공학과 △박사: 큐슈대 농예화학과 최종 학위 논문명: Structure Analysis and Characterization of Proteinase Inhibitor from Buckwheat (Faopysum esculentum Moench) Seeds



김현정(식품생명공학과) 조교수-식품화학 △학사: 단국대 식품공학과 △석사: Texas A&M University Food Science △박사: Ohio State University Food Science & Technology 최종 학위 논문명: Oxidation mechanism of riboflavin destruction and antioxidant mechanism of tocotrienols



김순환(통신공학과) 부교수-전자계산학 △학사: 한양대 통신공학과 △석사: 한양대 전자계산학과 최종 학위 논문명: 배선밀도를 고려한 배치문제



정주희(음악학부) 조교수-작곡 △학사: 버클리 음대 작곡과 △석사: 취리히 국립음대 작곡과 △박사: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작곡과 최종 학위 논문명: Morton Feldmans Crippled Symmetry



이창호(미술학부) 조교수-동양화 △학사: 홍익대 동양화과 △석사: 홍익대 동양화과 최종 학위 논문명: 수묵의 현대적 조형감각에 대하여



박주민(의학과) 조교수-신경생리학 △학사: 서강대 생명과학 △석사: 서울대 생리학 △박사: 서울대 생리학 최종 학위 논문명: Long-term changes recorded from identified spinal dorsal horn projection (spinothalamic tract) neurons in juvenile rats



이종후(의학과) 조교수-내과 △학사: 경희대 의학과 △석사: 경희대 의학과 최종 학위 논문명: 한국의 지역 사회 획득 폐렴 치료에서 2세대 또는 3세대 세팔로스포린과 클라리스로마이신의 병합치료와 플루오로퀴놀론 단독요법의 치료 효과에 대한 비교



정남연(의학과) 부교수-신경외과학 △학사: 충북대 의학과 △석사: 충북대 의학과 △박사: 충북대 의학과 최종 학위 논문명: 닭배자의 이차 신경배에서 기원한 미부 척수의 형태 형성 및 세포분화에 관련된 물질의 발현



김선형(의학과) 조교수-진단검사의학 △학사: 고려대 의학과 △석사: 고려대 의학과 △박사: 고려대 의학과 최종 학위 논문명: 한국의 말라리아 감염환자에서 Toll-like receptor의 유전자 다형성



<제주대신문>은 지난 873호(8월 29일자)에 이어 학생 중앙자치기구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총여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등 3개의 자치기구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의 공약 이행 정도를 살펴봤다. 임기의 절반을 넘긴 상황에서, 이들 중앙자치기구의 상반기 실적과 앞으로의 남은 과제를 짚어본다.

공약 사항 대체로 이행... 학생참여 없어 일부 프로그램 무산

'여성친구' 총여학생회

-1만 아라를 위한 특별한 사람들의 강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학기당 한 회씩 총 두 차례에 걸쳐 특별한 사람들의 강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 7일과 8일 이틀간 여학우의 날과 연계해서 유방암 예방을 위한 핑크리본 캠페인을 벌였다. 둘째날인 8일에 성교육 전문가 구성애씨를 초청해 첫회 강연을 시행했다. 좀 더 이색적인 분을 초청하고 싶었는데, 학교측과의 조율 문제로 뜻대로 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 오는 11월에는 두번째 강의를 선보이려고 한다. 1만 아라가 한마음으로 좋아할 만한, 보다 유명하고 특별한 분을 섭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라홀 리모델링 공약을 이미 완료했다. 그 효과는 어떤가.

"이 공약을 처음부터 내걸 때부터 학교 측과 협의를 마쳤다. 지난 2월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돼, 현재 한라홀은

카페테리아 느낌의 공간으로 바뀌었고 스티디룸도 갖춰지면서 이전보다 훨씬 실용적인 공간으로 변모한 상태다. 수용 가능한 인원도 대폭 늘었다."

-학생회관 등 건물에 전신거울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번 주 안으로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교양동, 제2도서관 등 학생들이 자주 출입하는 건물에 총 20개 정도의 전신거울을 설치할 예정이다."

-테마가 있는 여학우의 날을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 5월 8일에는 테마를 '호'로 정해 부모님과 함께하는 데이트를 기획했다. 그런데 신청자가 모자라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무척 아쉽게 생각했다. 지난 6월 8일에는 핑크리본 캠페인과 연계해 이틀에 걸쳐 여학우의 날을 기획, 진행했다."

오는 11월 8일 여학우의 날은 '특별한 사람들의 강의'와 함께 준비해

서 행사를 좀 더 크게 키우려고 한다. 그간 못한 만큼 더 알차고 흥미로운 여학우의 날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NS를 통한 학생들과의 소통을 주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총여학생회 페이스북을 따로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다. 친구도 2000여명 가량 된다. 행사나 공지사항들을 알리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쪽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홍보를 해주기도 한다."

-프린트 무제한 사용은 어떻게 됐다.

"이번 주 중으로 프린터와 복사기를 총여학생회 사무실에 설치할 예정이다. 원래는 업체와 연계해서 회사 마크가 여백에 표시된 종이를 가지고 무제한 프린트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 다른 회사로 교체했다. 기존의 계획과 달리 종이만 가져오면 무제한 프린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계 옆에는 이면지를 비치해 둘 계획이다."

유명강사 초청 맞춤형의 한라홀 개조 반응 좋아

SNS 통해 학생과 소통 일부 공약은 차질 불가피



오상은(정치외교3) 회장(오른쪽), 오숙경(경제4) 부회장(왼쪽).

-여학우 휴게실 철문을 유리문으로 교체하겠다고 했다.

"이 문제는 2학기 중에야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여학우 수면실에 비해 여학우 휴게실은 공간이 더 넓으면서 수요는 더 적다. 유리문으로 교체할지 아니면 아예 여학우 휴게실을 없애고 여학우 수면실로 새로 만들지 고심 중이다. 다른 여러 방안 또한 계속 강구하고 있다."

-학생회관 내 수선실은 어떻게 됐다.

"원래 지금 동아리연합회가 아닌 지난해 동아리연합회와는 이야기를 마쳐서 수선실 공간을 확보했다고 생각했었다. 구두 수선하시는 아저씨와도 이미 얘기를 끝냈었다."

그런데 이번 동아리연합회로부터 학생회관 동아리 공간 재배치가 2년 마다 이뤄지는데, 이번 연도에는 유지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어 공간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 우선은 넷북을 판매하던 공간을 수선실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학생회관 내에서 잘 운영이



안 되는 동아리 쪽과도 조율을 해보려고 한다."

-화장실 통신문에 외국어를 기입하겠다고 했다.

"3, 4월에는 외국어로 행사 안내를 했었다. 그런데 마련된 칸은 협소한데, 행사는 갈수록 많아져서 그 많은 세부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기입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김소영 기자



지난 6월 7일부터 이틀에 걸쳐 열린 핑크리본 캠페인.

회의록의 빠른 공개 등 계속 진행... 단대 감사 동영상 촬영도

'기준하나' 총대의원회

-학과 대표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은 어떻게 됐다.

"학과 대표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은 계속 이행 중이다. 올해는 매년 학생회에서 발생하는 홈페이지 관련 예산을 줄이기 위해 총대의원회,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해 만들었다. 그래서 내년 학생회에도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됐다. 홈페이지 개설을 대학과 협의해 개설하다 보니, 5월에야 중앙자치기구 홈페이지가 열렸다. 이러한 사정으로 늦다 보니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2학기에 미진한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타력적인 문자 사용량 조절 이뤄졌나.

"문자 이월제를 이행했다. 올해는 3.4월에 사용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7.8월에 쓸 수 있는 양을 끌어다 사용하게 했다. 이는 3.4월 등 행사가 많은

달에 문자를 많이 써야 하고 7, 8월 등 학교 행사 등이 적어 상대적으로 문자 사용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보급되다 보니 학과 대표들이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많이 사용했다. 그러다 보니 문자 사용량이 현저하게 줄었다."

-매년 반복되는 인택선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출마자 등록을 한 후 선거 세칙을 반드시 따르도록 계도하고 있다. 만약 세칙에 위반한 사항을 적발하게 되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본부로 전환했을 때 불이익을 주겠다. 제도도는 학인, 지인이 심한 사회인데 이런 부분은 한 번에 못 바꾸겠지만 학생들의 식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하겠다. 올해 포스터는 약력을 기재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대신 선거운동본부의 정책이나 소속 학과 등만을 기재하는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선거운동 기간,

선거일에도 각 단과대학 대의원회와 함께 불법선거운동을 막을 계획이다."

-총대의원회 회의록 개시, 선거 세칙 등의 외부공개가 왜 이렇게 늦어졌나.

"학생 신분이라 다른 일도 겸하다 보니 상임위원회 등의 회의록 업데이트가 늦어졌다. 학생자치기구 홈페이지 개설 지연 문제도 한몫 했다. 원래는 매 회의가 끝날 때마다 올렸어야 했는데, 여러 사정 때문에 8월 말 중에 일괄등록하게 됐다. 이에 대해 잘못된 점을 시인한다. 다음 학기 때부터는 단과대학 감사도 동영상으로 촬영해 대의원총회 때 올리는 등 좀 더 투명하게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힘쓰겠다."

-출마 당시 "단순 학과대표를 위한 딱딱한 학생자치기구가 아닌 학생들과 소통하는 총대의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다.

"학과대표 오리엔테이션이나 대의원총회 때에 학생들이 많이 참가할 수

과열·불법선거 적극 차단 홍보포스터 약력기재 없애

시험기간 간식 제공 진행 체육행사 여학우 참여 독려



김진영(경영4) 의장(오른쪽), 김기만(산업응용경제4) 부의장(왼쪽).

있도록 홍보했다. 학생들이 질문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분위기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시험기간 간식 제공 등에 "꼭 필요한 사업이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도 있다.

"시험기간에 제공하는 간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총대의원회가 학생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다."

총대의원회 사무실이 어디인지 모르는 학과대표도 많다. 이 사업을 통해 총대의원회는 학과대표가 총대의원회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다."

-시험기간 간식 제공과 마찬가지로 학사내집(축구대회)을 왜 총대의원회에서 어느나 하는 의견도 있다.

"많은 학생들이 총대의원회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시험기간 간식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총대의원회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



지난 3월 27일 사회과학대학에서 열린 2012학년도 상반기 대의원 총회.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의 참가율이 저조하다. 그래서 이 점을 예전부터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여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

전체동아리MT 대신 간담회 개최... 남은 임기내 동아리 활성화에 주력

'Why Not?' 동아리연합회

-동아리 전체 MT 등 동아리인의 친목을 위한 기획을 하겠다고 했다.

"지난 2월 10일에 동아리 회장단 LTC를 다녀오면서 회장들끼리는 많이 친해졌다. 하지만 전체 동아리 MT는 일정을 조율하기가 어려워 시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간담회 등을 통해 동아리인들끼리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했고, 몇몇 동아리끼리 연합해서 만날 수 있도록 자리도 주선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동아리끼리 친해진 곳도 있다. 예전에는 옆방의 동아리원을 봐도 인사를 안했지만 이제 인사를 한다.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친해지게 만들었다고 본다."

-대동풍이를 통해 동아리, 동아리인을 알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반 학생의 참여가 조금 어렵다는 평도 있었다.

"대동풍이는 동아리가 활동한 내용을 학우들에게 보여주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는 대동풍이를 통해 학우들의 동아리 가입을 유도하려고 했었다. 동아리 가입을 붙여 주로 하기에 지난해까지 가을에 열렸던 대동풍이를 붙으로 옮겼다. 더불어 선거운동본부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일반 학생들의 참여율이 조금 저조했다는 의견도 고려했다."

낮 행사에는 사전에 준비한 음식이 전량이 매진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지만, 저녁에 열린 동아리 공연에는 개강파티 등의 학과 행사와 겹친 관계로 참여율이 조금 낮았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고 내년, 내후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일정 등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하겠다."

-농촌 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

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이 잘 됐는가.

"처음에는 농촌 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 계획을 짰다. 하지만 봉사활동은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봉사 동아리들의 메리트가 줄어든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런 의견을 고려해 모든 동아리인이 모여 봉사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름방학에 일부 동아리인과 함께 농촌 봉사활동을 서귀포대에서 진행했다. 이 농촌 봉사활동에 동아리인 150여명이 참여했다. 기존에 술을 먹고 MT같은 분위기의 농촌 봉사활동과는 달리 일에 더 무게를 뒀었다."

참여한 학우들은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더 기억에 남고 뿌듯했다고 말했다. 또 마을 이장님도 고맙다고 하면서 이번 겨울방학에도 도와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동아리연합회 사무국이 열려 있지 않아 시설물이나 장소를 빌려주는 부분이 아쉬웠었다.

동아리 회장단 LTC 가서 봉사활동은 제한적 실시

학생회관 시설관리에 만진 업무 인수인계에 최선



홍성식(일어일문4) 회장(왼쪽), 박현애(생활환경복지3) 부회장(오른쪽).

"시설물 관리, 장소 관리 등을 전담하던 부서국장과 부장이 임명 때문에 휴학을 했다. 이로 인해 여럿이 돌아가면서 관리해 모든 시설물을 꼼꼼하게 기록·관리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관리국에 사람을 두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를 이용해 빌려줌으로써 동아리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제 4개월 정도의 임기가 남았다. 어떻게 이끌 것인지.

"선거, 동아리방 재배치 등 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았다. 특히 선거가 제일 중요하다. 작년에 선거가 미뤄지면서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다. 올해는 선거를 제때 해 인수인계를 잘해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음 동아리연합회가 내년엔 잘 이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외에도 가을에 동아리인들끼리 모여 체육대회를 해보고 싶다."

-마지막 한마디.

"요즘 취업의 중요성과 맞물려 동아리 활동의 선호도가 예전에 비해 떨어졌다. 동아리연합회도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동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은 대학교 시절의 추억이 되고 개인의 역량이나 인맥 등을 늘릴 수 있다.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동아리 활동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김동현 기자



지난 2월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동아리회장단 LTC. 동아리 연합회는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동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은 대학교 시절의 추억이 되고 개인의 역량이나 인맥 등을 늘릴 수 있다.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동아리 활동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